

“여호와와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을 전파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사 61:2)

## 반가운 만남들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저희 교회에 반가운 손님들의 방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10월 24일 감비아 한병희 선교사님이 방문해주셨고, 오늘은 니카라과 박우석 선교사님께서 이현숙 사모님과 함께 방문하십니다. 코비드 상황으로 단기 선교를 접어야 했던 저희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귀한 선교사님들의 방문을 통해 선교를 향한 마음을 다시금 다잡게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선교사님들의 방문 소식에 기꺼이 자원해서 투어와 숙식, 라이드 등으로 아낌없이 섬겨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 감비아 한병희 선교사님/ 최현희 사모님

30여년 감비아 선교를 해오신 한병희 선교사님께서 두 주전 저희 교회를 방문하셨습니다. 감비아에서는 자녀 공동체를 만들어서 말 그대로 아이들과 생활하시며 직접 양육하시고, 국제학교, 안과사역, 재난 구제사역, 현지 선교부의 일 등을 감당해오셨습니다. 올해 안식년 시작으로서의 첫 발걸음은 미국 딸이 있는 아리조나에 먼저 들어오셔서 첫 선교보고지로 저희 교회를 방문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김현희 사모님이 미국에 입국하자마자 가장 침험적인 종류의 말라리아 감염으로 판정되어 응급실에 입원하셨고, 결국 선교사님만 저희교회를 방문하시게 된 것입니다. 사모님은 중환자실에서 고비를 넘기시고, 9일만에 퇴원하시고 이제 많이 호전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심하게 손상된 간, 신장 등의 회복을 위해 계속적이고 장기적인 치료가 필요합니다. 선교사님은 감비아에 있는 선교부에 새로운 디렉터로 최수영 선교사님을 세우고 나오셨지만, 상황에 따라 안식년을 마치시기 전이라도 감비아로 돌아가실 것이라고 합니다. 말라리아라는 큰 병으로 고생은 하셔야 했지만, 좋은 의료진의 손에 치료받으시고 회복되도록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고 감사합니다. 미국에 있는 두 따님과 앞으로도 장시간의 치유가 필요한 사모님과, 한병희 선교사님의 건강과 사역을 위해서도 지속적인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 니카라과 박우석 선교사님/ 이현숙 사모님

우리 교회가 2018년과 2019년 두번에 걸쳐 단기선교를 다녀온 니카라과의 박우석 선교사님과 이현숙 사모님께서 지난 수요일에 덴버에 오셨습니다. 선교사님은 니카라과에서 23년간 섬기며, 수십 개의 지역 교회들을 개척하셨고, 현지 목회자들을 양성하고 어린이 사역, 의료사역 그리고 선교센터를 통한 지속적인 선교사역 등을 해 오셨습니다. 코비드의 확산세가 최근 부쩍 강해져서 니카라과의 상황도 쉽지않은 않습니다.

두 주 전에 캐나다의 아들 가정을 방문하셨고, 니카라과로 돌아가시기 전에 저희 교회를 방문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은 주일 예배 설교와, 오후 간담회 그리고 저녁에는 단기 선교팀과 만남의 시간 등을 가지실 예정입니다.

간담회 시간은 니카라과 선교에 관해 더 깊이 이해하고, 선교사님과의 대화도 나누는 귀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선교에 대한 궁금한 부분들을 직접 질문하고 답을 듣는 시간도 가질 것입니다. 많이 동참해 주세요.

앞으로의 선교사님의 사역들과 온 가족의 건강을 위해서도 계속 기도로 후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T국 장과장, 주얼매 선교사님

T국에서 선교하시는 장 선교사님, 주 사모님의 선교편지의 내용을 요약하여 나눕니다. T국은 기독교 박해가 심한 대표적인 이슬람 국가로서, 최근 몇년간은 공개적인 핍박 사례들이 뉴스를 장식하기도 했습니다. 때문에 모든 문서에 국가명과 선교사님들의 실명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자세히 읽어 보시고, 현지의 필요를 놓고 함께 기도하며 실질적 도움의 길도 고민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그 동안 잘 지내셨는지요? 저희도 1나님의 은혜와 여러분들의 사랑과 관심 덕분에 잘 지내고 있습니다. 아들 연약도 어느덧 두 살 반이 되었네요. 이제는 말도 어느정도 알아듣고 자기 감정도 어떻게든 표현하려는 모습에 그저 신기합니다. 이 곳은 여전히 하루에 2만명이 넘는 확진자와 200명이 넘는 사망자가 속출하고 있지만 모두가 예전과 같은 일상으로 돌아간 것 같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 분의 은혜 가운데 2차까지 백신접종을 받을 수 있었고, 덕분에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예전보다 더욱더 적극적으로 영혼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그 분께서 저희에게 맡겨 주신 사명과 소명을 잘 완수할 수 있도록 이 어려운 시기가 하루 빨리 끝나길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 땅끝까지 이르러...

선교소식지 2021-6

“여호와와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을 전파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사 61:2)

그동안 함께 손 모아 주셨던 H 형제&B 자매 부부(아들: H 만, 딸: B 타)의 근황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중요한 손 모을 제목 하나를 나누고자 합니다. 참고로 KIPC 는 길예평&길진명 선생님 가정과 저희 가정이 함께 섬기고 있는 현지 교회임을 약자입니다.

H 형제&B 자매 부부는 북 2 라크출신 난민으로 2016 년 저희 지역으로 유입되어, 그해 10 수님을 영접하고 지금까지 저희 KIPC 를 통해 성실하게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2019 년, B 자매는 KIPC 에서 성실한 신앙생활, 성경공부 이수, 섬김(봉사)의 본을 보여 장년부 리더십으로 임명 받았습니다. H 형제는 동네 사진관에 취직하여 카메라 촬영 및 편집 담당직원으로 일하며 가족의 생계를 책임졌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내인 B 자매보다는 성경공부나 훈련 참여도가 다소 낮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2019 년 겨울, 오랜 기도 끝에 H 형제&B 자매 부부가 앞으로의 삶을 그 분께 헌신하겠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리더십 훈련을 막 시작하려는 시점에 팬데믹 상황이 발생했지만 1 나뉘게서는 라이브스쿨(Live School: 남아프리카를 거점으로 둔 선교사훈련학교의 훈련프로그램)이라는 온라인 훈련 도구를 주셔서 2020 년 4 월~2021.10 월 현재까지 훈련중에 있습니다.

훈련기간이 길고 훈련내용이 많아서 H 형제가 직장생활과 훈련을 병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했습니다. 10도와 상의 끝에 H 형제의 직장을 내려놓도록 권면을 하고 훈련기간 동안 필요한 기초생계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훈련기간 이후는 다시 2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1 년 6 개월 동안 훈련을 진행하면서 사실 재정적 부담이 많았습니다. 별도의 준비된 예산없이 저희 두 가정의 후원금에서 H 형제&B 자매의 4 인 가족 생활비(의료비, 교육비까지)를 모두 감당하는 것은 무리가 따랐습니다. 물론 10도편지를 받고 틈틈이 도움을 주신 10도와 후원자 분들이 계셔서 한숨을 돌릴 수 있었던 것은 참으로 감사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6, 7 개월 정도 더 남아 있는 훈련과정과 본격적인 풀타임 4 역이 시작될 경우를 생각할 때 H 형제&B 자매 가정을 위한 별도의 예산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입니다.

한달 평균 700 불 정도가 필요합니다. 저희 두 가정이 지난 1 년 6 개월 동안 최소한의 생계비와 약간의 활동비를 지원한 내용을 근거로 산출한 금액입니다. 이외에도 의료비, 자녀교육비는 그때 상황에 따라 따로 그분의 은혜를 구해야 하겠지만 우선 기초 생계비를 확보해야 이 가정이 남은 훈련과 그 이후 사역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앞으로 KIPC 리더십으로 섬길 뿐 아니라 중동난민 4 역은 H 형제&B 자매 부부가 전면에 나서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동역자님들의 10도와 10원에 동참해 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① 일회성 10금 ② 정기 10금 (3 개월/6 개월/1 년/ 또는 사역 종료시까지)

※ 이 10금은 저희 4 역자를 위한 4 역비 후원이 아니라 현지에서 리더십으로 섬길 H 형제&B 자매 가정의 기초생계비를 위한 별도 후원금이며 KIPC 재정과는 따로 관리됩니다.

※ H 형제&B 자매 가정을 후원으로 도움을 주시길 원하시는 분은 선교부에게 알려주시면 자세한 후원방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선교지 한줄 기도제목

### 공통기도:

- 선교사님과 가족들이 코비드로 인해 지치지 않고, 영육이 모두 강건하시도록
- 안식년을 이미 가졌거나 계획하고 계신 선교사님들이 재충전의 시간을 통해 새 힘과 위로를 받으실수 있도록

감비아	한병희	국제학교건물 증축, 사머니즘과 토속신앙과 고투하는 교우들의 믿음, 사모님의 언전한 치유와 빠른 회복을 위해.
니카라과	박우석	교육을 통한 복음 전파, 현지교회들과 목회자들의 영성을 위해. 대통령 대선비리와 정치불안정이 교회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영주권 연장.
르완다	닉 & 크리스탈 피롤로	르완다 신학대학교(CIIR) 정부 승인과 적합한 교장선생님 청빙을 위해.
스리랑카	정은범	안식년 동안 밀렸던 일들을 마무리하시기에 지치지 않는 건강을 위해.
아리조나	모니카 리	응급 지붕공사로 인한 예산 총당과 순조로운 공사진행을 위해
필리핀	김대영	캄보디아 선교의 문이 열리도록, 필리핀 교회의 영적인 굳건함
T 국	장과장 & 주열매	리더 훈련중인 B 자매, H 형제의 재정적 필요가 속히 채워지도록
CRU	한정혜 & 데미안 브룩스	리더십 프로젝트 사역들. 선교사님 가정에 태의 문을 열어 주시기를